

캠퍼스 투어, 대학결정·에세이 작성 도움

11학년 대학 방문 가이드



전국 대학 카운슬링협회인 National Association for College Admission Counseling(NACAC)의 지난 7년 간의 조사에 의하면 76% 이상의 대학이 지원자들에게 입학허가를 했을 경우, 대학 방문의 여부가 그 대학에 실제 입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영향력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학 방문은 고교생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대학 진학을 준비하게 하는 모티브를 제공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목표로, 보다 도전적인 동기를 불어넣어 주기도 한다. 또 대학 방문에서 만난 재학생 선배에게 질문을 하거나 입학 사정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확한 진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본격적인 대학 입시에 들어가는 11학년들에게 있어서 대학 방문은 진학 준비에 필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꼭 가봐야 하는 이유

본격적으로 봄방학 시즌을 맞아 많은 한인 학부모들은 선택에 어려움을 느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 방문은 반드시 자녀와의 능력과 진로에 맞춰 가족단위 소그룹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대학투어는 실제로는 방학기간보다는 대학의 클래스가 진행되고 있는 때가 더 좋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11학년 봄방학을 이용하여 함께 방문하기도 하지만 학교생활과 과외활동 등을 병행하며 빠듯한 시간을 선택 내기란 쉽지 않다고 말한다. 게다가 봄방학은 5월에 있을 SAT와 AP 테스트 준비 및 학년말 시험 등으로 방문계획을 세우는 게 어렵다는 애기다.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 이것저것 잘 따져 봐야 한다.

11학년에게 캠퍼스 방문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진지하게 지망 대학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명성만으로 선택한 후 대학생활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대학들을 미리 지원목록에서 제할 수 있다. 즉 필요 없는 대학 지원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자신이 진정 원하는 대학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의미는 지원 예정인 대학방문을 통해 입학원서의 에세이 작성 때 지원 대학을 결정한 이유를 서술할 때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인터뷰의 질문에 답할 때 깊은 인상을 줄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현지에서 할 일

장거리 여행을 준비하면서는 먼저 지도를 보고 가야 할 목적지를 확인하



제니 김
(에드먼스턴 매스터스)

여 그 곳에 닿을 수 있는 가장 최단거리를 가능해 보고 길을 떠난다. 자녀가 선택할 대학도 이처럼 학교에 대한 입학 정보를 수집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지에 도착해서는 직접 캠퍼스를 돌아보고 지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여름방학 중 많은 대학에서는 한두 차례에 걸쳐 오전과 오후



11학년 학생들은 봄방학을 이용해 지원하고 싶은 대학들을 한 번 직접 방문해 보도록 하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나중에 지원서를 작성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 <AP>

지망대학 범위 압축... 입학 후 문제점 예방 관계자 인터뷰·투어 계획 미리 수립 도움

로 나누거나 심지어는 매 시간대로 자기 대학의 입학제도를 설명해 주는 세션을 갖고 있다. 전화로 미리 시간대를 알아두어 투어를 실행한다면 좀 더 현명한 방문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 관심 있는 대학에 대한 감각을 얻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방문 후에 자녀가 그 대학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면 지원서 작성 때 요긴하게 그 내용을 담을 수 있

을 것이다.

간혹 학부모들은 대학에 부모가 직접 전화해서 질문하거나 계획을 세워도 좋겠는가를 묻는다. 대답은 “그렇다”이다.

물론 일부 입학사정관들은 지원자가 직접 대학 방문과 인터뷰 등의 계획을 세우는 것을 더욱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가는 대학 투어라면 여행의 일정과 숙박계획 등

을 자녀에게만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자녀들은 여름방학 중에도 인턴십을 하거나 칼리지 코스를 듣고 또는 학교 서머 프로그램에 있기에 대학 측에서 응답할 수 있는 시간대에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부모는 직접 이런 일들을 대신 해주어야 하고 대학 역시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

만약 자녀가 운동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대학팀의 코치를 만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겠다. 또한 자녀가 대학 진학 후 계속해서 운동을 할 계획이라면 자원예정 대학 투어 때 운동 시설에 대한 투어도 할 것을 권유한다. 만약 음악이나 연극 등을 전공할 계획이라면 오디션 일정도 문의해서 계획을 짜도록 하라.

■ 간접 방문 방법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대안으로 그 대학 웹사이트나 비디오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등을 하는 방법이 있다. 요즘 온라인 시스템들이 너무 잘 발달돼 있어 실감나면서도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 칼리지 보드 추천 캠퍼스 방문 요령

질문 리스트 작성... 재학생 조언 청취

1. 대학 리스트를 만들어라

대학 홈페이지나 학교 안내 책을 통하여 기초 정보를 미리 찾아내고, 알고 싶은 질문도 작성해 두는 게 좋다. 학교 분위기가 전공분야 선배를 통한 학과의 특성, 생활, 학교의 장단점 같은 목록을 만들어 학교별로 비교하면 각각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학교 지도를 보고 교내 서점, 기숙사, 학생 식당, 체육관 등 가능한 많은 곳을 둘러볼 수 있도록 계획하라.

2. 방문 목적을 분명히

대학 방문은 목표 대학을 선택하는 중요한 가이드 역할을 한다. 재학

3. 방문노트 작성

대학 방문 중에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기록해 둔다. “무엇이 너를 흥분시켰는가?” “도

생들로부터 대학생들과 전공 특성 및 클래스에 대한 조언을 듣고 그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는 목표를 갖는 게 중요하다. 학과 사무실이나 입학 사무실 같은 곳에 미리 연락을 해서 관심 있는 전공과 전망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를 받도록 하라.

서관의 느낌은 어땠는가?” “자신을 극장의 무대에 올랐다고 상상해 보았는가?” “실험실의 도구들을 보며 더욱 관심이 생겼는가?” “혹시 대학의 나쁜 점은 발견했는가?” 등에 대해 꼼꼼히 메모하고, 방문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방문 리포트를 작성해 두면 에세이를 쓰거나 최종 결정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각 대학의 안내책자는 별도로 보관하고 특별히 인상 깊었던 곳은 사진을 찍어두어도 좋다.

4. 대학 방문시기

가장 좋은 시기는 8월 중순에서 9월 초로 고등학교 개학 전이고 대학 학기가 진행 중일 때이다. 방학 중에는 캠퍼스에서의 학생들의 생활과 공부 분위기를 알 수가 없다. 반드시 미리 학교의 스케줄을 확인하고 요일로 정할 때는 주중이 가장 좋다.

가장 이상적인 방문 시기는 11학년은 봄방학 때이고, 12학년 경우는 조기 신청이 마감되는 11월 이전에 하는 것이 좋다.

www.TheAdmissionMasters.com, (855)466-2783

37년동안
안경만을 생각한
데니얼 백이
아이비 안경으로
다시 찾아갑니다.

200여 가지의
다양한 디자인

한국 고급 안경
이전 4주년 기념 SALE

안경테 + AR코팅렌즈 \$95

주문후 30분 안에 만들어드립니다



아이비 안경 213.380.1001 • 213.389.6363

808 S. Western Ave. #216, L.A., CA 90005(아이비플라자내)

Mon-Sat 10am to 7pm

